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석연찮은 판정… 광주FC 뿔났다

수원전 이어 울산전도 잇단 파울 선언에 PK 내줘 역전패 눈물
주도권 잡은 경기 흐름 끊고 선수들 위축… 심판판정 제소 검토

신생팀 광주 FC가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일 울산 원정에 나섰던 광주 FC는 공격수 김동섭의 3경기 연속 골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과 프리킥으로 동점 그리고 역전을 허용하며 1-2로 패배했다.

광주는 앞서 수원과의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도 1-0으로 리드하고 있던 후반 30분과 35분 프리킥과 페널티킥으로 두 골을 내주며 아쉬운 눈물을 흘렸다.

두 경기 연속 매끄럽지 못한 경기 운영이 전개되면서 광주와 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에 울산전 오심에 대한 팬들의 항의글이 올라오는 등 심판판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과의 대결에서 광주는 25초만에 골을 터트린 김동섭을 앞세워 줄곧 경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후반 들어 파울선언이 이어지면서 수비진이 크게 흔들렸다. 이날 광주는 3개의 경고와 함께 24개의 파울을 기록했다.

최만희 감독은 수원전을 치른 뒤 "꼭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울을 계속 주니까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들이 자꾸 위축되면서 경기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최만희 감독의 안타까운 탄성이 나왔다.

전반 35분 '태극듀오' 박기동과 김동섭이 선제골을 합작하면서 2패를 기록중이던 울산의 움직임은 다급해졌다. 팽팽한 긴장감속에 광주 페널티박스 안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던 후반 22분, 승부를 결정짓는 휘슬이 울렸다.

수원의 이호가 공을 몰고 가는 도중 넘어졌고 주심은 곧바로 광주 수비수 박병주의 파울을 선언했다. 정상적인 몸싸움이었고 발에 걸려 넘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광주는 통한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허용해야 했다.

후반 40분 역전골을 내준 프리킥 상황도 광주에게는 애타는 순간이었다. 수원 김신욱이 페널티지역 밖 오른쪽 진영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넘어졌다. 김신욱을 뒤쫓던 수비수 허재원이 발을 잘못 딛어 넘어진 뒤에 나온 '헐리웃 액션'이었지만 심판은 프리킥을 외쳤다. 이를 항의하던 허재원은 경고까지 받아야 했다.

최만희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신생팀의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경직될까봐 걱정이다"며 "좋은 경기를 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 공정한 무대가 필요하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구단주인 강운태 시장도 경기 직후 박병모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TV 중계로 경기를 봤는데 명백한 오심이다. 프로축구연맹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한 최만희 감독과 선수단이 마음 잘 추스르고 광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판정 논란속에 안타까운 연패를 기록한 광주는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구본길(왼쪽)이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 준결승에서 프랑스의 줄리엔 메다를 거세게 몰아부치고 있다. /연합뉴스

KIA 홈경기 입장권 주중·주말 차등 적용

내·외야석 주중 7000원·주말 8000원

〈성인기준〉

2011시즌부터 무등야구장에 주중과 주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6월부터는 내야석 지정좌석제가 도입된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2011시즌 무등야구장 입장요금을 확정했다.

1·3루석 및 외야석은 주중 성인 7000원, 학생 및 군경은 4000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3500원이다. 주말에는 각각 8000원, 5000원, 4000원에 판매된다.

일반석 초등학생 요금은 주중 2000원, 주말 2500원이다. 7회말 종료 이후 입장 할 경우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중앙 지정석은 성인이 주중 1만2000원, 중고생은 9000원, 어린이는 6000원이며 주말에는 각각 1000원씩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2011프로야구 8개 구단 어린이 회원과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1급 장애인(장애인증 소지자)의 경우 일반석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내야석 지정좌석제는 4~5월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1루석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7월부터는 3루석까지 포함해 전 내야석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중앙 탁자석 상단인 K7 가족석은 2인 및 4인 단위로 판매된다. 2인석은 주중 6만원, 주말 및 공휴일 6만6000원이다. 4인석은 주중 12만원, 주말 13만2000원이다. K7 가족석의 경우 음료와 다과, 빕스 식사권이 제공된다.

중앙 탁자석 하단에 위치한 K5석은 주중 2만5000원, 주말 2만8000원으로 1인 단위 구매가 가능하다. 1루 탁자석인 쏘울석은 주중 2만원, 주말 2만3000원이며 외야 탁자석인 포르테석은 주중 1만5000원, 주말 1만8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2011 홈경기 요금 (단위 : 원)

구분		주중	주말·공휴일
K7 가족석(2인)		60,000	66,000
K7 가족석(4인)		120,000	132,000
K5석		25,000	28,000
쏘울석		20,000	23,000
포르테석		15,000	18,000
지정석	성인	12,000	13,000
	맴버십회원	10,000	11,000
	중·고생	9,000	10,000
	어린이	6,000	7,000
1·3루 외야석	성인	7,000	8,000
	맴버쉽회원	5,000	6,000
	중·고/군·경	4,000	5,000
	국가유공자	3,500	4,000
	장애인	3,500	4,000
	어린이	2,000	2,500
	심야	1,000	

티켓은 인터넷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전화(1588-7890), 훼미리마트 편의점 ATM, 한네트 ATM, 구단 홈페이지 등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한편 4월2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시즌 개막전 티켓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예매가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주영 PK 실축

모나코, 낭시에 0대 1패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1부리그) AS모나코에서 뛰고 있는 박주영(26)이 첫 한 시즌 두자릿수 득점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다.

박주영은 21일 새벽(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AS 낭시와의 2010-2011 정규리그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0-1로 지고 있던 전반 42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지난달 27일 SM캉과의 홈 경기(2-2 무승부)에서 시즌 8·9호골을 잇달아 터뜨렸던 박주영이 2008년 프랑스 진출 이후 첫 한 시즌 두자릿수 득점 기회를 날리는 순간이었다.

모나코는 전반 19분 낭시의 수비수 안드레 루이스에게 내준 헤딩 결승골을 끝내 만회하지 못해 0-1로 패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 무패(1승2무) 행진을 끝냈다. /연합뉴스

'검객' 구본길 金찌르기

러 월드컵 대회 우승
세계 랭킹 1위 올라

한국 남자 펜싱의 간판스타 구본길(동의대)이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구본길은 21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막을 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 A급 대회 결승전에서 니콜라스 로페스(프랑스)를 15-14로 물리쳤다.

준결승에서 줄리엔 메다(프랑스)를 15-13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구본길은 로페스와의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본길은 지난 달 월드컵 A급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랭킹 1위에 올라섰고, 한 달 만에 다시 국제대회에서 우승했다.

헝가리 그랑프리대회에서는 3위에 올라 니콜라스 림바흐(독일)에 잠시 세계랭킹 1위를 내줬으나, 이번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 32점을 더해 총 248점으로 자리를 되찾았다.

이날 발표된 남자 사브르 랭킹에서 원우영(서울메트로)이 5위, 오은석(국민체육진흥공단)이 7위에 자리하는 등 10위권 내에 한국 선수가 3명이 포함됐다.

한편, 남자 에페 대표팀은 같은 기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러시아 팀을 제치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